



Economy

코스피 3148.29 (+22.34)	코스닥 979.13 (+5.41)
금리 (미국 3년) 0.979 (+0.003)	환율 (원/달러) 1095.10 (-4.80) (13일)



[뉴스]
현대차
전기차 혁신
'아이오닉5' 티저 공개
02

바야흐로 구독경제의 시대다. 정기적으로 신문·잡지 등을 구독하던 시기를 지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구독할 수 있다. 금융도 그 중 하나다. 영업점에서 순번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려야 할 수 있던 금융업무는 스마트폰 하나면 똑딱 해결할 수 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필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구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월 1만원에 투자 자문 필요할때만 보험 가입 금융을 구독하다

금융 어디까지 구독해봤니

① 소유 대신 구독

직장인 A씨는 최근 OO증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를 구독하기 시작했다. 1만원(월)의 소액에도 주식 투자자의 경우 장 개시부터 종로까지 시장 주도주, 기관·외국인 실시간 수급분석 정보부터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매매타이밍 정보, 전용 증권방송 등 차별화된 투자정보를 시간대별로 받을 수 있어서다.

◆소유·관리 필요 없는 '구독'

소비자들이 금융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소유'를 통한 '관리'가 필요 없어서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하면 과거에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가입 설계서 등이 한 파일로 묶여 집으로 도착했다. 하나의 보험상품을 소유했다는 증거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가입한 보험을 최소 1년 이상 관리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년간 보험을 관리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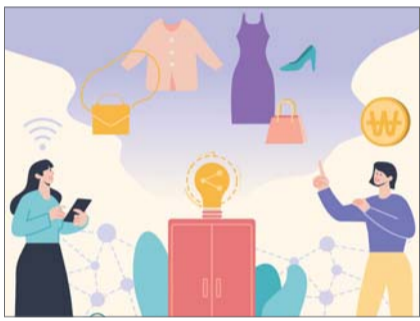
합리적 소비로 구독경제 부상 소유·관리 없는 '경험'에 초점

금융사 구독서비스 속속 준비 월정액제로 일정한 수익창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수익 예측, 장기고객 확보

그러나 금융구독을 하면 이 같은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 자동차 운전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사고가 나고, 여행사고는 여행을 가야만 사고가 난다. 예측 가능한 사고일 경우 보험 보장범위와 기한을 제한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관리 시간과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반납의무와 상품 및 서비스를 고를 때 겪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롭다. 금융 구독은 공유와 달리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때문에 억지로 반납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자산관리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소비자는 필요 시까지 이용하고 원할 때 해지하면 된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것에 대비한 스트레스도 덜 수 있다.

◆금융사, 고객경험을 '상품'으로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하나 둘씩 금융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구독 서비스의 경우 주로 월 정액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더 이상의 예대 마진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은행권 당기 순이익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약 3000억원) 줄었다. 작년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2조1000억원에 비해 15.1%(약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은행의 투자자문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부동산 투자자문을 해주고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자산규모 등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2019년 기준 KB국민은행의 상담건수는 약 7950건이다. 아직 금융구독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구독서비스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금융권은 금융구독을 통한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구축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상규 KDB미래전략연구소장은 "금융권은 현재 투자자문서비스를 통해 구독 사업모델 적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구독서비스가 시행되면 반복적인 매출기반으로 현금흐름 창출과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성급한 수익화 추진보다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능력 강화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장기고객 확보에 필요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LG화학, 통풍·NASH 등 신약 개발 속도

(비알코올성지방간염)

40여개 신약 핵심 성과 발표
파이프라인 토대 글로벌 공략



LG화학이 40여개로 대폭 확대된 R&D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 도약에 적극 나선다.

LG화학 손지웅 생명과학본부장은 13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해 4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핵심 성과를 중점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계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대사질환 후보 물질과 항암 및 면역질환 세포치료제 등 핵심 파이프라인이 포함된다.

우선 '동일 계열 내 최고 의약품(Best in Class)'을 목표로 개발 중인 통풍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 의약품에 지정된 유전성 비만 치료제의 성과를 소개한다.

LG화학이 개발 중인 통풍 치료제는

통풍의 주요 원인인 요산(XO)의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으로, 미국 임상1상 시험 결과 식사와 관계 없이 하루 한 알 복용만으로 요산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독성 및 심혈관 이상 반응도 확인되지 않아 기존 약물들을 뛰어 넘는 효과와 안정성을 갖춘 신약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임상2상을 종료하고 신속히 시험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미국 임상1상을 진행 중인 유전성 비만 치료제는 식욕 조절 단백질인 'MC4R'을 활성화 시키는 기전으로, '계열 내 최초의 경구(먹는) 치료제'다. 편의성이 높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

난해 11월 동일한 기전의 주사용 비만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어 LG화학의 개발 성공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미개척 신약 분야인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의 경쟁력도 소개한다. NASH 신약과제는 간염증 및 섬유화 관련 단백질인 'VAP-1'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현재 미국 임상1상 단계에 있다. 상용화된 신약이 없는 질환분야인만큼 개발에 속도를 내 2022년 1분기 임상1상을 종료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면역항암 세포치료제 플랫폼인 'CAR-T'와 'iPSC' 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치료용 유전자 적용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이세경 기자 seilee@



주식투자 관련 서적 불티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주식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고용한파, 공공부문 채용으로 긴급 수혈

비상경제·한국판뉴딜 장관회의 상반기 공공부문 45% 이상 채용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본격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응해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을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집중해 신속히 시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올해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다.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도 본격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한파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2만 8000명 감소해 지난 1년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에는 2022년까지 3조원의 복합금융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이 고용창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벤처 창업 활성화에 더욱 발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공급하고,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고 올해 4개 권역,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그린·디지털 전환 흐름을 타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을 공급하고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 사업 공공예타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